

#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문 대통령 적용 안돼”...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 ‘사면심사위’ 거쳐야...선거연령 18세 하향

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

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

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

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하고, 법관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평소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베트남 국민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축구협회를 방문해 시축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항서 감독,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 부득 담 베트남 부총리, 베트남 축구선수대표. /연합뉴스

## 윤곽 나온 대통령 개헌안...여야 강대 강 대치

26일 발의시 전면 충돌 불가피... ‘국회 협의체’ 첫 난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지막 날인 22일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강대 강 대립을 이어 가며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하면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국회 차원의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민주당은 당장 개헌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만의 협의체 구성제안은 누가 봐도 알팍한 속셈”

이라며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실현하려면 협상을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없이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막가파식 제왕적 대통령이 따로 없다”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도 패싱(건너뛰

기),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역할)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의 야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부의사를 분명히 하며 “5당 정치협상회의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각 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 드린다”면서 여야 개헌테이블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28일까지 베트남·UAE 순방

동남아·중동 교두보 확보 ‘세일즈 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5박 7일간 일정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베트남측 국가주석실 장관과 외교차관, 우리 측 이혁 주베트남대사 내외 등의 영접을 받고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해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

(KIST)을 모델로 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숙소에서 베트남 동포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엔 쯔 다이 팡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응우옌 푸 쯡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 쉰원 폭 총리, 응우옌 티 킴 응언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숙소 인근 서민식당에서 하노이 시민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양국 국민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한 후 UAE로 출발한다.

한편, 이번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은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허브’를 공략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양대 지역의 핵심거점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활로를 뚫어 주려는 ‘세일즈 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22-24일 베트남 방문은 문 대통령이 표방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신남방정책의 맞을 올리는 계기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에게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교두보로 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이에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모델국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21세기 물 전쟁 시대...4대강 자연성 회복”

이 총리, ‘물의 날’ 축하...“10개 보 시범개방 분석 후 개방”

계속된 점, 금강·낙동강 녹조로 생태계 파괴와 식수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위기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랍해나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며 3대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10개 보를 시범적으로 개방했다.

그 효과를 분석해 올해 안에 전체 16개 보의 개방 등 처리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 유역단위 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정부 스스로도 선도적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니연신 부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닌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지),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주 문 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평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 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서울 광화문: 동부영양소 (02)692-4907, 북부영양소 (02)691-3182, 남부영양소 (02)691-6535, 관서영양소 (02)691-4949, 서부영양소 (02)694-2295, 안성영양소 (02)695-4088, \*광명영양소 (02)694-8901  
 \*충청영양소 (042)623-8901, \*전북영양소 (063)214-2129, \*전남영양소 (063)269-3501, \*광주영양소 (063)269-3441, \*전남영양소 (063)271-8928, \*전남영양소 (063)271-8928, \*부산영양소 (051)554-8901